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18 WINTER VOL. 105

THEME MECENAT

2018 한국메세나대회
기업과 예술의 동행, 그 가치를 되새기다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
The world's first education insurance 'Jinhak Insurance'

교보생명 60년의 믿음 교육이 미래다

아이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인생을 살아갈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육이다.'
변치않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교육보험을 다시 선보입니다.

교육자금을 보증하는 신개념 변액교육보험

미리 보는 (무)교보변액교육보험

-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 대학학자금, 어학연수 비용, 주거 비용 등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자금 마련 가능
- [튼튼한 최저교육자금 보증] 운용성과에 관계 없이 최저교육자금을 보증하고, 운용성과가 좋을수록 더 많은 교육자금 지급
- [성장기에 다양한 질병 보장] 특약으로 치아, ADHD, 암 등 다양한 질병보장에 수술 및 입원까지(해당특약 가입시)



*최저교육자금 보증을 위해 별도의 보증비용이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금, 교육자금 보증, 미래준비자금 보증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교보생명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계약자적립금, 해지환급금 등이 매일 변동되고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요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808-20 상품자문팀(2018.08.23) 생명보험협회 심의필제2018-3198호(2018.8.24)

당신의 꿈을 믿습니다 BELIEVE IN YOU

젊은 창작자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동안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집니다

CJ문화재단은 음악, 영화, 공연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이
꿈을 향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툄업 19기 뮤지션 'ADORY'

CONTENTS

문화예술 향유와 확산,

테마기획

기업이 앞장서다

기업과
예술의
동행,

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그 가치를
되새기다



자랑스러운
기업들



메세나 통권 105호
발행일 2018년 12월 14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가격 5,000원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작품_〈메세나〉 스테인리스 스틸 캐스팅, 17.7×6.5×6cm, 2018년

2018 메세나대상 트로피는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의 건축적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진보적 미래를 향해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시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이불의 작품으로 6개 기업과 기업인에게 헌정되었다.

작가 이불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한 작가는 뉴욕 현대미술관(1997년), 뉴욕 뉴 뮤지엄(2002년), 파리 까르티에 현대미술재단(2007년), 도쿄 모리 미술관(2012년), 무담 룩셈부르크-그랑 뒤 장 현대미술관(2013년), 런던 헤이워드 미술관(2018년)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1998년 〈휴고 보스 프라이즈〉의 최종 후보로 선정됐고, 1999년 〈제48회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비롯해 2012년 〈김세중 조각상〉, 2014년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눈 예술상〉, 2015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등을 수상하며 한국의 조각예술을 이끌어왔다.

메세나 포커스

- 14 **메세나 스토리**
현대식 화랑의 아버지 ‘레오 카스텔리’
- 18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공간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극장을 만들어 내겠다”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
- 22 **해외는 지금**
사회를 바꾸는 문화의 힘,
남미의 걸쳐포인트
- 26 **메세나 갤러리**
MMCA 현대차 시리즈 2018
‘최정화-꽃, 숲’
국립현대미술관
- 30 **전통과 현대의 조우**
동양의 도자,
유럽에서 찬란하게 꽃피우다



문화 CSR

- 34 **메세나 가까이 보기**
스스로 만들고 더 많이 나누는 영메이커 인재
LG연암문화재단 ‘LG 영메이커 페스티벌’

게임하듯 즐기며 배우는 연극 수업
LG연암문화재단 ‘LG 사랑의 아트스쿨’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즐기는 오페라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드림그림 장학생, 세계무대에 오르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 40 **기업-예술 파트너십**
3년간의 지원 성과, 한자리에서 만나다
종근당홀딩스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악보와 지휘는 볼 수 없어도 연주는 수준급
신세계 & 한빛예술단

공연으로 다문화의 인식을 바꾸다
신한은행 창작 가족뮤지컬 〈마실라〉

도심 가득 울려 퍼지는 아리랑 선율
크라운-해태제과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웃음, 눈물, 감동을 한 자리에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지승컨설팅 & 연우무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프로젝트
광주문화재단 & 대양건설, 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수원요양병원, 수원센트럴병원

함께하는 메세나

- 46 **세미나 소식**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예술계의 역할
- 48 **회원사 뉴스**
- 51 **한국메세나협회 소식**
- 52 **문화 캘린더**
- 54 **회원사 소개**





문화예술
향유와 확산,

기업이
앞장서다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장,
 '2018 한국메세나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한 해 동안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세계로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메세나 정신으로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철학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한국 메세나의 현재를 보여준
 뜻깊은 축제의 장을 소개한다.

기업과 예술의 동행, 그 가치를 되새기다
 - 2018 한국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기업들
 - 제19회 메세나대상 수상사



기업과 예술의 동행, 그 가치를 되새기다

2018 한국메세나대회
현장 스케치

2018 한국메세나대회



‘2018 한국메세나대회’가 11월 29일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9년부터 시작한 메세나대상 시상식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기업, 기업인을 발굴해 시상해왔다. 기업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메세나대상 시상식은 2007년 한국메세나대회로 확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8 한국메세나대회에는 국내 기업인과 예술인,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짚어 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다짐했다.



기업과 예술의 뜻깊은 만남의 장이자 축제의
‘2018 한국메세나대회’



지난 11월 29일, 메세나 정신을 되새기고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도모하는 자리인 ‘2018 한국메세나대회’가 막을 열었다. 한국메세나대회는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과 ‘제19회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여러 회원사를 비롯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기업과 예술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인과 예술인 소통의 장

MBN 정아영 아나운서의 사회와 영상으로 2018 한국메세나대회의 문을 열었다. 2018 한국메세나대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하여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이건설업 박영주 회장,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풍산그룹 류진 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등 각계 인사들이 함께 했다.

한국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과 예술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예술로부터 크고 중요한 가치들을 얻으며 기업과 예술이 동반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과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낌없이 예술을 지원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높은 안목으로 예술을 즐기고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름답고, 깊고, 높은 예술의 가치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써주시는 마음과 노력에 감사하

2018 한국메세나대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메세나대상 시상식



01

2018 한국메세나대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메세나대상 시상식



02



03

다”는 따뜻한 축사를 남겼다. 또한 도종환 장관은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지역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대중음악, 순수예술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예술가를 키우는 가장 큰 힘은 기업인과 후견인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임을 강조하고 “국내 기업 문화예술 후원 규모가 6년만에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뒤이어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진행되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은 한 해 동안 결연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예술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자리이다. 올해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193개 커플이 결연을 맺었으며 총 64억 원이 예술계에 전달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과 예술단체들은 인사를 나누며 축하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중공업과 USP(Ulsan Stirling Players) 챔버 오케스트라, 노루홀딩스와 함신익과 심포니 송이 각각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부문 ‘2018 올해의 베스트 커플’로 선정되었다. ‘올해의 베스트 커플’은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에 장기간 참여하여 모범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 커플을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대기업 1커플과 중소·중견기업 1커플이 기립패를 받았다.

노루홀딩스 김용기 대표이사는 “윙바디 트럭을 클래식 무대로 개조하여 문화소외계층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고 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신익 예술감독은 “전국에 음악으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꿈인데 그 꿈을 이루어준 노루홀딩스 회장님과 한국메세나협회에

01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동성코퍼레이션 백정호 회장

02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서 2018 올해의 베스트 커플로 선정된 기업과 예술단체

03 참석자들이 2018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커플 리스트를 보고 있다.



04
대상을 받은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

05
축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



05

고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평양, 신의주까지 우리의 클래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과 예술인의 열정이 돋보이는

제19회 메세나대상 시상식


곧이어 ‘2018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해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는 메세나대상은 총 다섯개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대상의 영광은 동서식품에게 돌아갔으며 문화공헌상은 LG생활건강, 창의상은 에이치케이(HK)가 수상했다. 또한 메세나인상에는 동성코퍼레이션 백정호 회장, Arts & Business상에는 오성정보통신과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인 손진척 연출은 심사보고를 통해 “올해는 여성문인 지원, 문화소외지역 문화 향유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해 온 기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수상자들의 활동을 통해 메세나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고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시상식에서는 먼저 Art & Business상을 수상한 오성정보통신과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 무대에 올랐다.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진윤일 대표는 “창단 초기부터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준 오성정보통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성정보통신 이만선 대표이사는 “작은 기업의 작은 일까지 관심을 가지고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더 힘을 내 문화예술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창의상을 수상한 에이치케이 계명재 대표이사는 “아이들에게 음악교육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해외도 좋지만, 국내의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뒤이어 장관표창인 문화공헌상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 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해외에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동성코퍼레이션 백정호 회장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는 대중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이 모여서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은 각박한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문화 예술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 해동안 가장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주어지는 대상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을 운영하고, 지역 클래식 음악 향유에 기여한 동서식품에 돌아갔으며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다.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이사는 “커피의 향기를 나누는 것처럼 인생의 향기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해왔다”고 전하며, “이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삶의 향기를 나눌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수상기업과 기업인에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치미술가인 이불 작가의 작품이 트로피로 수여되었고 시상 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피아니스트 박진형의 축하연주가 이어졌다. 끝으로 이견산업 박영주 회장의 축배 제의와 만찬으로 2018 한국메세나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예술 발전과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과 2018 한국메세나대상 회장단

저변 확대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기업들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후원 활동에 참여한 기업들이
모였다.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에
동참한 기업인과 예술가들이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6개 수상 기업이
단상에 올랐다. 참석자 모두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이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8
MECENAT
AWARDS




대상

동서식품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동서 커피클래식

동서식품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29년간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을 운영하며 한국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수상작을 <월간 문학>에 수록하게 하여 신인 여성 작가들에게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원의 기회가 적은 문학 장르, 특히 여성문학인 후원 사업은 진정성 있는 메세나 활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등단 이후 문학기행, 특강, 합평회, 멘토링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동서식품은 또한 2008년부터 매년 '동서 커피클래식'을 통해 전주, 춘천, 대구, 창원, 청주 등 지방 도시 주민들을 위한 무료 클래식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동서 커피클래식'이 진행되는 지역의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선정하여 악기와 연습실을 지원하고 전문 음악 인과의 마스터클래스를 지원하는 '맥심 사랑의 향기'를 병행해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 문화기업의 예술 지원 본보기가 되고 있는 동서식품은 앞으로도 문학과 음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메세나인상

동성코퍼레이션 백정호 회장



#아트부산 #부산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월천청소년문예대상

동성코퍼레이션은 화학분야 신소재개발로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융복합 소재 전문기업이다. 동성코퍼레이션의 백정호 회장은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음악, 미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 꾸준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드러내기 보다는 진심을 담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둔 백정호 회장의 선행에서 진정한 메세나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산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가 초창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 아트페어로 성장한 아트부산 후원에도 앞장서 부산지역 예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백정호 회장은 1986년 故 백제갑 선대회장 때부터 후원하던 월천청소년 문예대상을 통해 30년 넘게 청소년 문예창작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월천홀과 월천라운지를 조성했다. 이와 더불어 수년간 평창대관령음악제와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을 후원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폭넓은 메세나 활동을 해온 백정호 회장의 행보는 존경받는 메세나인으로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문화공헌상

LG생활건강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궁중 문화 캠페인 #해금예찬

LG생활건강은 '궁'과 '왕실 여성 문화' 그리고 '전통'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후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궁중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궁중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궁의 보존관리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왕실 여성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미디어 아트, 복합 문화 체험 전시, 해금 공연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 스토리 오브 후 궁중문화 캠페인'은 내국인은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전통예술과 궁중 문화를 접하게 하여 한국의 미를 알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2006년부터 '해금예찬'을 통해 해금 연주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활동은 기업 브랜드와 전통 예술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문화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앞으로도 한국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널리 전파하는 메세나 기업으로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창의상

에이치케이(HK)



#삶과 나눔 콘서트 #기업-예술-청소년

에이치케이(HK)는 산업용 소재 고밀도 레이저빔과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체로서 2012년부터 음악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에이치케이는 비영리 사단법인 행복나무 플러스에서 진행하는 '삶과 나눔 콘서트'를 6년째 후원하고 있으며, 그 음악회 수익금으로 보호시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보호 시설 출신 중 시설 퇴소 이후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과 그룹홈 아동들의 음악교육 사업에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과 예술과 수혜자의 삼각관계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에이치케이 임직원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여 메세나의 의미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에이치케이라는 중소기업의 모범적인 문화공헌 활동은 타 중소기업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A&B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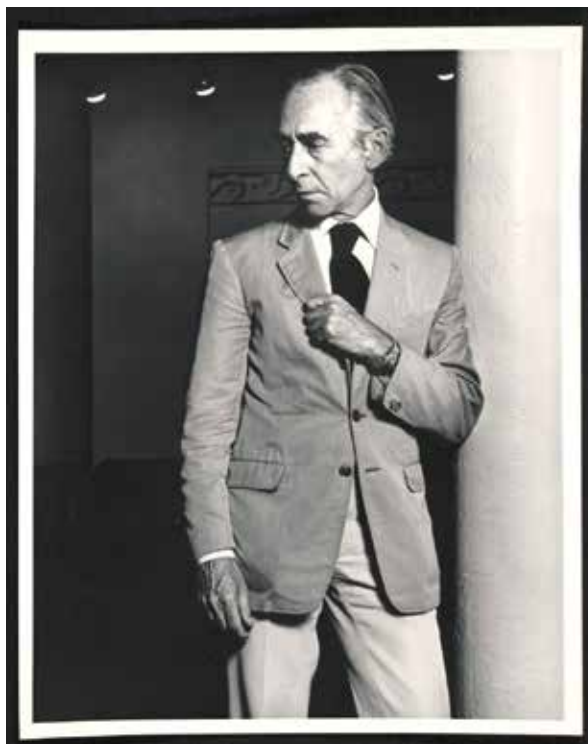
오성정보통신 &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

#2015년 결연 후 클래식 공연 개최 #광주·전남 지역주민 대상

전남 무안에 있는 정보통신시스템 제조 및 설계 시공사 오성정보통신은 클래식 공연단체인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과 2015년부터 결연을 맺고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해 오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클래식 공연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민에게는 단비 같은 공연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음악의 열정을 청중과 함께 나누다'는 취지로 2012년 설립된 클래식 단체이다.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기업의 지원에 힘입어 클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개발하고 레퍼토리로 발전시켜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오성정보통신 임직원들을 위한 음악공연과 함께 클래식 강의를 진행해 직원들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일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성정보통신과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지방 중소기업과 예술단체의 진정성 있는 결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현대식 화랑의 아버지 '레오 카스텔리'



01

위대한 예술가와 중요한 미술 흐름의 탄생에는 작품을 유통시키고 작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화상(畫商), '갤러리스트'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 1907-1999)는 현대 갤러리 운영 모델의 기준을 만든 이로 '현대 미술계의 대부'로 불리운다. 카스텔리는 20세기 전반에는 파리에, 후반에는 뉴욕에서 갤러리를 열어 당대 최고의 작가들과 일했고, 양 대륙을 오가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며 미술사의 현장을 만들어 나갔다. 이번 호에서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갤러리와 갤러리스트의 관계를 살펴보고, 카스텔리를 통해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갤러리스트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02

갤러리스트의 자질

갤러리스트로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갤러리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이를 컬렉터에게 판매하는 매개자이니 단연 작품을 볼 줄 아는 눈과 작품을 잘 팔 수 있는 영업 능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를 증명할만한 전문성과 뛰어난 화술, 그리고 자금 혹은 자본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감각 등이 필요할 것이다. 카스텔리의 자질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그의 장점은 뻔해 보이는 이 속성을 좀 더 은밀하게 매력적으로 지니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자신의 삶도 이런 저런 좌절의 연속이었다는 점이다.

밀라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첫 출발을 했지만, 그는 줄곧 문학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의 반대와 루마니아 근무 중 결혼을 하게 되면서 (훗날 소나벤드 갤러리를 창립한 일레아나 샤피라) 꿈은 더욱 멀어져갔고, 파리 근무 중 친구들과 함께 재미삼아 갤러리를 열어 보지만 그마저도 2차 세계 대전으로 단 한 번의 전시로 문을 닫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역사적 위기의 시절이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공부 좀 해볼까 싶었는데, 군 징집으로 또 한번 꿈이 멀어지게 된다. 하지만 신혼 생활부터 수집했던 미술작품에 대한 취향, 유럽에서 갤러리를 열어봤던 작은 경험, 미국에서 만나게 된 작가 친구들은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산이 되었다. 여러 우연이 그를 화상의 세계로 인도하여, 비로소 1957년, 무려 나이 쉬흔에 그만의 갤러리를 열게 된 것이다.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부정할 수 없는 그의 타고난 행운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여러 책을 탐독하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시대의 어려움과 개인적 좌절을 폭넓은 아량으로 바꾸고, 언제나 아름다움과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했던

01
레오 카스텔리 초상 사진 ©Leo Castelli at the Castelli Gallery

02
레오 카스텔리가 앤디 워홀과 함께 있는 사진 ©Sam Falk/The New York Times

03
레오 카스텔리와 작가들 ©1991 Hans Namuth
Estate

04
현재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의 전시
장면(리히텐슈타인) ©Estate of Roy Lichtenstein

05, 06
현재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의 전시 장면.
©Robert Morris



03

자질은 그 자신이 이루어낸 그만의 매력이었다. 메리 분 갤러리 관장이 소개하는 카스텔리와 그의 일화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아트바젤 기간 중 함께 식당 테라스에 앉아 강가의 연인을 내려다보며, 더럽고 차가운 강가에서 뿔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 카스텔리는 ‘인생은 내일부터(La vita inizia domani)’라고 외치며 연인을 위해 샴페인을 들었다고 한다. 언제나 멋진 양복 차림에,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우아한 태도로 유머마저 구사하는 카스텔리의 모습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글로벌리즘과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카스텔리를 20세기 화상의 전형이라 부르는 것이다.

카스텔리가 갤러리의 전형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후원하면서
20세기 미술사의 중요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데에 있다.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네오 다다, 팝 아트, 미니멀
아트, 신표현주의 등 작가군도 넓었다.

새로운 예술의 발굴과 후원

물론 그가 화상의 전형이라 불리우게 된 가장 큰 덕목은 새로운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후원해 내면서 20세기 미술사의 중요 순간을 함께 했다는 점이다. 그가 함께한 작가들을 꼽아 보면 초현실주의를 시작으로 추상표현주의, 네오 다다, 팝 아트, 옴 아트, 색면 추상,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 신표현주의 등 20세기 미술사를 관통한다. 갤러리스트로서의 그의 미덕은 독점과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후원에 있었다. 재스퍼 존스의 전시를 개최하고 싶어하는 다른 갤러리스트가 찾아왔을 때 자신도 작품의 대기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기꺼이 작가의 연락처를 주면서 작가에게 한 번 연락해보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아랑, 후배 갤

“만약 작가들이 나와 함께한
 첫 15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한
 다음 15년을 함께할 수 있다.”

러리스트 가고시안에게 자신의 고객이었던 거물급 컬렉터를 소개해주고, 또 다른 후배 딜러 제프리 다이치에게는 자신이 작품을 판매한 고객의 리스트와 그들의 소유한 작품 목록을 아예 통째로 건네주는 것은 보통의 경쟁적인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덕분에 그의 갤러리는 그를 돕고자 하는 동료 및 후배 딜러들이 넘쳐나 분점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 갤러리 수입의 70%는 외부에서 온 것이라 말할 정도로 그가 작품을 선별하기만 하면, 작품의 판매가 저절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잘 팔리지 않는 작가의 작품도 꾸준히 구매해주며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작가를 선택한 적은 없다. 만약 작가들이 나와 함께한 첫 15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내

가 그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한 다음 15년을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작가와 갤러리스트의 관계를 구축했다. 훗날 작가의 작품이 진면목을 발휘해 팔리게 되면 대신 수수료로 50%를 취하며 그동안의 투자를 회수했는데, 대부분의 갤러리가 현재 작가와의 판매 비율을 5:5로 하거나, 전속 작가 제도를 두는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갤러리스트의 평판

이렇게 훌륭한 카스텔리를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트리에스테에서는 그를 시립미술관의 명예 관장으로 임명하고자 했지만 당시 미술관 관장이 “상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며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 갤러리스트로서 미술관 보다 가까이 작가들을 접하고, 좋은 작품과 작가를 선별하여 전시회를 만들어내면서 미술사의 흐름을 써 내려가도, 실제로는 ‘장사꾼’ 취급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갤러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큐레이터’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그럼 경영인으로서 인정을 받느냐 하며 그렇지도 못한다. 워낙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인 탓에 제도화시키기 어렵고, 대규모로 확장하거나 비즈니스가 지속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인들도 갤러리는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혹은 해봐야 큰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카스텔리 갤러리도 그의 서거와 함께 사라질 뻔 했지만, 다행히 미술사가인 그의 아내가 갤러리를 맡아서 운영하며 아트바젤 페어에도 출품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갤러리스트로서 일하는 동안 쌓아 수 많은 자료는 미국미술아카이브에 기증되어 미술사 정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05



06



04

지난 9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터줏대감 역할을 자임해온
세종문화회관이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극장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취임
일성으로 화제가 된 김성규
사장이 그다. 본래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회계법인을
경영하던 인물이라는
점도 이색적이다. 개관
40년인 올해, 그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을 끈다.



김성규

“대한민국의 문화공간 중 가장 경쟁력 있는 극장을 만들어 내겠다”

세종문화회관 김성규 사장

40년 불혹의 나이가 된 세종문화회관을 지휘할 인물로 임명된 김성규 사장은 문화예술계 회계와 경영 전문 컨설턴트로 명망이 높았다. 그런 그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문화공간을 이끈다는 소식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문화예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여러 기관단체의 회계·조직·경영 자문역을 맡아왔다. 한국 예술경영학회 이사,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 등을 지내기도 했다. “이제야 고전·낭만주의 음악이 귀에 들어오고, 현대 예술까지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다”라며 예술에 관한 비전문가라고 말하지만, 여러 예술기들과 교류하며 누구보다 그 삶을 이해해온 그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 향유자이자 조력자다. 그간의 노력을 알아준 것인지 지난 11월 말,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문화·콘텐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가 세종문화회관을 어떻게 탈바꿈해야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김성규 사장과의 대화다.



◆ 취임 이후 두 달 여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취임 인사 직후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존에 경영하고 있던 회사에서도 떠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정리할 일들이 많았죠. 남들은 어떻게 보름 만에 조직 개편, 업무 조정을 하느냐며 너무 빠르다고 말했지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타입의 사장이 왔으니, 직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할까봐 싶기도 합니다(웃음). 올해가 개관 40주년이고, 연중 행사가 가장 많은 시기라 조금씩만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조직 개편이라지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모으고 업무적으로 협력해야 할 부서는 한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하는 정도입니다. 홍보마케팅팀과 재원조성팀을 사장 직속으로 두고 예술단지원팀 업무를 조정하는 수준으로 조직 개편을 마쳤습니다. 직원들의 적응 기간을 최소화하되 효율성은 조금 더 높이지는 거죠.

◆ 취임 직후의 열정적인 행보가 눈에 띕니다.

특히 새로이 만들어진 ES추진단이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ES추진단은 세종문화회관을 찾는 예술가와 공연관계자들, 관객들이 찾아 오기 쉽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지요. 쉽게 말해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연장 만들기'라고 할까요? ES는 Emotional Safety(감성적 안전)의 약자인데, 극장 앞을 지나거나 공연·전시를 보러 오는 시민들, 또 바로 앞 광화문광장을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물리적인 안전을 뛰어넘어 편리하고 편안한, 감성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문화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ES추진단에서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고, 향후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단계까지 연구해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한 이용자와 잠재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 '감성적 안전'이란 단어가 생소하면서 친근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구상한 것인가요?

세종문화회관의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나 같까 생각했어요. 물론 사장 공모 지원서에 관련된 내용을 쓰기도 했지만, 앞으로 세종문화회관과 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들, 다시 말해 관객을 비롯해 시민, 기업 관계자, 예술가,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을 직원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정보들을 찾아보다가 Emotional Safety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취임해서는 직원들이 휠체어를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불편한 부분,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보도록 했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스튜디오 가졌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시할 만한 것, 큰 불편이 없는 것이라도 바꿔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계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요?

얼마 전까지 말 그대로 "난 예술은 문외한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문화예술 분야와 만난 시간을 헤아려보니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1998년에 서울예술단(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경영 컨설팅을 한 것이 예술경영의 시작점이었지요. 이후로 여러 문화예술 기관·단체들과 인연을 맺었고, 추계예술대학 학교 예술경영대학원(겸임교수 역임)에서 예술경영에 뜻을 둔 학생들을 만나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곳은 4개의 극장(대극장·M씨어터·체임버홀·S씨어터)과 미술관, 아카데미, 컨벤션 등의 시설을 갖추고 9개의 산하 예술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 예술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삼청각과 돈화문국악당,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등 3곳의 외부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요. 따져보면 국내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조건이다 보니 조직 혁신이 어렵고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많고,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애정도 깊어요. 다만 적잖이 경직된 분위기와 창의성을 발휘할 계기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저 혼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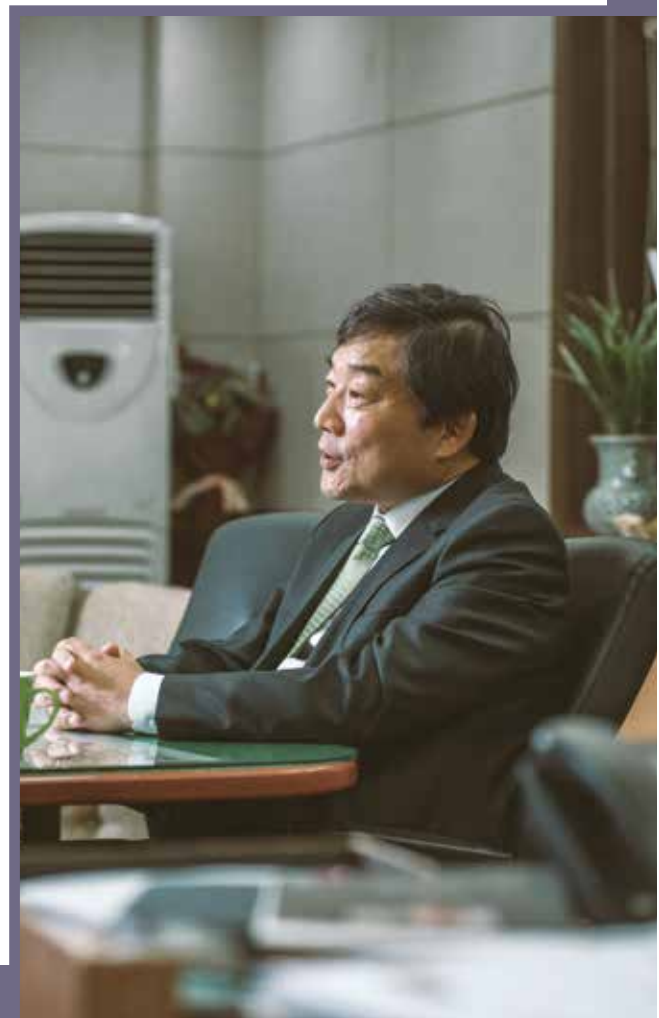
◆ 그렇다면 생각하고 계신 복안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가장 잘 하는 분야는 회계와 경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종문화회관을 위한 경영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뛰어난 작품을 무대에, 전시공간에 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지속 가능하도록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역할이죠. 업적을 위해 무엇을 확 바꾼다든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등의 계획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나씩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다보면 딱딱한 조직 분위기도 유연해지지 않을까요?”

◆ 얼마 전 ‘2018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에서 수상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수상자가 없었던 문화 콘텐츠 분야의 첫 수상인데요.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아직 크게 한 일이 없는데,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그동안 만나온 여러 인사들이 잘 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겠죠. 세종문화회관의 지나온 40년을 축하하고, 이제부터 만들어 나갈 40년을 위한 응원이라 생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시민과 함께, 그리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종문화회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의 뛰어난 작품을 자주 무대에 올리는 최고의 제작극장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과 지원이 꼭 필요해요. 기회가 된다면 거부하지 않고 기업 단체를 만나고, 사장실을 열어 두어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의 관계를 도모해서 같이 협력해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사회를 바꾸는 문화의 힘 남미의 컬처포인트

01



베네수엘라는 오케스트라 교육 '엘 시스템아'를 통해 빈곤층 청소년들을 가난과 범죄로부터 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케스트라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엘 시스템아의 사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은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



02



03

01, 02, 03
 브라질의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지역 커뮤니티들이 힘을 모아
 3,500여 개의 컬처포인트를 설치했다. ©브라질 문화부

—

브라질의 사회문화 정책사업 ‘컬처포인트’는
 주민들이 문화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역마다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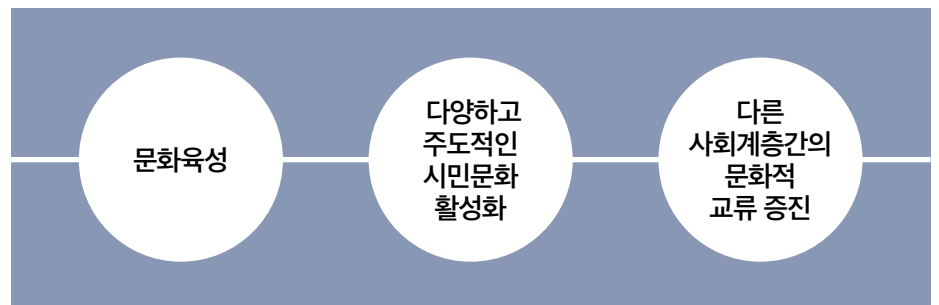
—

문화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다

2003년 브라질은 사람들이 문화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각 지역마다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다. 그렇게 정책사업 ‘컬처포인트(Points of Culture)’가 출발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과 이웃의 삶, 나아가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수천 개 문화예술 프로젝트 및 지역 커뮤니티들이 뜻을 모았다. 사업의 아이디어를 낸 것은 룰라 대통령 시절 5년간 문화부 장관을 맡았던 음악가 질베르토 길(Gilberto Gil)이었다. 예술가가 문화부 장관이 되었다는 것, 그런 사람이 제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서라도 컬처포인트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컬처포인트의 목표는 단순했다. 사람들이 문화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정 장소를 각 지역마다 만들겠다는 것. 이에 따라 브라질 문화부는 2008년 총 10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총 300여 개의 컬처포인트 참여 기관 단체를 선정하며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갔다. 그리고 사업 시행 10년 만에 브라질 전국에 걸쳐 3,500여 개의 컬처포인트를 갖게 되었다. 컬처포인트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04, 05

아이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접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브라질의 컬처포인트 ©브라질 문화부

06, 07

페루는 브라질의 컬처포인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공 네트워크 개념의 컬처포인트를 시작했다. ©페루 컬처포인트



04



05

—
브라질의 컬처포인트는
아르헨티나와 페루, 우루과이 등
다른 남미 국가들로 확산되어
같은 명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컬처포인트의 프로그램으로는 참여 문화예술인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문화요원(Living Culture Agent)’, 컬처 포인트 단체에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및 영상매체 제작 설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문화’, 지역사회의 텔레비전·라디오·블로그·잡지·보도자료를 통해 단체 소개와 홍보활동을 돕는 ‘미디어 프리’, 컬처 포인트 소속단체 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 활성화를 위한 연례회의 ‘TEA 컬처포인트’ 등이 있다. 이밖에 우수 컬처포인트 시상 및 우수 교사 프로그램, 남미권 외 국가와의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네트워킹도 지원하고 있다.

수혜대상은 주로 저소득 인구 밀집지역 및 공공서비스 접근 취약 지역 거주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및 학생, 다문화가정 및 예술가, 문화 생산자 밀집지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등이다.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 셈이다.

브라질 정부는 시민들의 문화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지역주민과 단체가 스스로 문화적 요소를 활용, 지역 환경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과 창작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성과는 금세 다른 남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아르헨티나와 페루, 우루과이 또한 동명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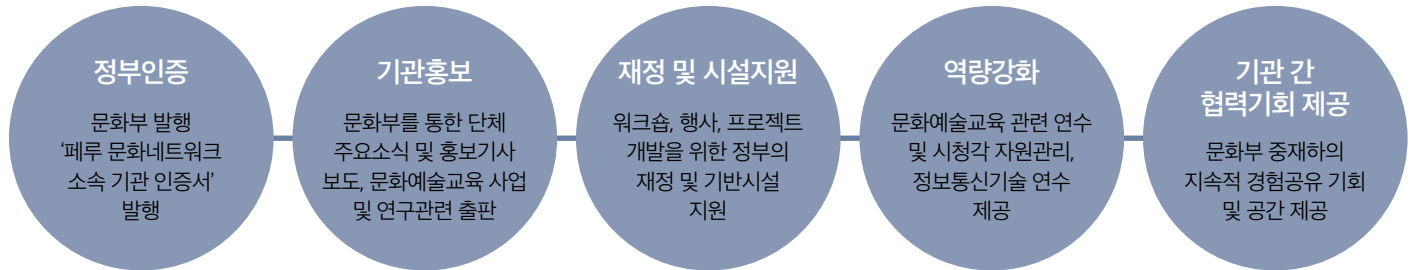
07



비행청소년의 삶에 예술을 불어넣다

페루의 컬처포인트는 브라질의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2011년 페루 문화예술지원부는 문화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시민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수용력 증진을 꾀하며 공공 네트워크 개념의 '컬처포인트'를 시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 문화활동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페루는 컬처포인트 참여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페루 컬처포인트 참여 비영리기관 단체의 혜택



정부인증

문화부 발행
'페루 문화네트워크
소속 기관 인증서'
발행

기관홍보

문화부를 통한 단체
주요소식 및 홍보기사
보도,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연구관련 출판

재정 및 시설지원

워크숍, 행사,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기반시설
지원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및 시청각 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 연수
제공

기관 간 협력기회 제공

문화부 중재하의
지속적 경험공유 기회
및 공간 제공

현재 페루 전역에는 총 311개의 컬처포인트가 있다. 음악이나 무용, 연극 등 활용되는 예술의 분야도 다양하다. 페루 컬처포인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역사회의 범죄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더 많은 문화, 더 많은 안전(Más cultura es más seguridad)'이 있다. 문화단체들이 길거리 비행청소년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삶을 보다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래집단과의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의식 또한 키울 수 있다.

이처럼 컬처포인트는 이미 남미 문화예술정책에 한 흐름이 될 정도로 규모와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문화예술이 남미 지역과 그곳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더 좋게, 또 더 낮게 바꿀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

내전의 상처를 치유한 작은 몸짓 '몸의 학교'

이미 컬처포인트 이전에 남미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있었다. 바로 콜롬비아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다. 이는 엘 시스템아와 함께 예술교육의 대표사례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

미국에서 현대무용가로 활동하던 알바로 레스트레포의 고국 콜롬비아는 오랜 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폭력,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은 눈앞에서 다치거나 죽어가는 어른들을 목격하며 자라났다. 죽음이 일상이 돼버린 환경에 놓인 아이들에게 인간의 '몸'이란 무엇일까? 레스트레포는 고향의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한 몸의 철학을 알려주기 위해 1997년 '몸의 학교'를 설립했다.

무용을 배우고부터 아이들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레스트레포는 '몸의 학교'는 무용의 기술이 아닌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의미와 가치를 가르친다고 말한다. 설립 후 8,000여 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몸의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들 중 일부는 전문 무용수로 성장하기도 했다. 현재 '몸의 학교'는 콜롬비아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으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MMCA 현대차 시리즈 2018 최정화-꽃, 숲

국립현대미술관



최정화

최정화는 플라스틱 바구니, 돼지저금통, 빗자루 등 일상에서 흔하게 소비되는 소재나 버려진 소모품을 활용해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일상의 사물을 예술화하는 그의 작업은 고급예술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며 급속한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를 은유한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국제무대에서 지역성과 보편성을 담아내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01
민들레, 2018, 생활그릇과 철 구조물

02
꽃숲, 2016-2018, 혼합재료로 가변설치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가로 '최정화'를 선정, 그의 개인전 <꽃, 숲>을 개최한다. MMCA 현대차 시리즈는 2014년부터 10년간 매년 1인의 국내 중진작가를 지원하는 연례프로젝트로, 현재 문화예술과 기업이 만나 상생효과를 창출한 대표적인 기원후원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초 MMCA 현대차 시리즈의 작가로 선정된 최정화는 대량생산된 일상의 소비재를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역시 일상의 사소한 생활용품에 불과한, 또는 기능을 잃어버린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가시화한다.

공공미술과 소통

최정화는 지난 3월 공공미술프로젝트 <모이자 모으자>를 진행했다. 참여자들로부터 식기를 기증받아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민들레>다. 일상의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결합을 추구하는 그의 작품세계를 반영하고 있다. 민들레 홀씨처럼 모인 7,000여 개의 식기는 높이 9m, 무게 3.8톤의 거대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하고, 작가는 사물의 반복과 축적, 관람객의 참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관람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01



02





03

03
어린꽃, 2016-2018, 플라스틱 왕관과 철 구조물

04
꽃의 향연, 2015, 생활그릇

05
늪은 꽃, 2015, 혼합재료

06
알케미, 2016, 혼합재료

07
세기의 선물, 2016, 철구조물과 크롬도장

꽃의 향연


전시의 부제인 <꽃, 숲>은 작품명이기도 하다. 작가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재료의 물건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서의 '꽃숲'을 탄생시켰다. 밝음과 어두움이 대비를 이루는 공간 속 일상의 물건을 쌓아 올려 만든 146개의 꽃탑은 그들만의 숲을 이룬다.

'꽃, 숲'뿐 아니라 전시된 많은 작품들에 '꽃'이란 이름이 붙었다. <어린꽃>은 화려한 유아용 플라스틱 왕관을 활용한 작품이다. 왕관은 거울면 위에 설치돼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데, 끝내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작가는 세월호 침몰로 희생당한 어린 생명들을 추모한다.

뒷박, 제기, 베를, 촛대 등 오래된 소모품으로 이루어진 <꽃의 향연>은 평소 천박하다고 여겨졌던 소재들로부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최정화 작가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이며, <늪은 꽃> 역시 수많은 나무 빨래판이 지닌 세월의 흔적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한다.

뒤섞인 시공

〈알케미〉는 트릭의 바퀴, 무쇠솥과 인도의 항아리, 막걸리 잔 등 특정 시절이나 특정 장소에서 흔하게 사용된 물건들로 만든 탑이다. 앞선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의 물건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용도도 다르고 시대와 국적마저 다른 물건들을 쌓아 올림으로써 과거·현재·미래의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결혼식장을 차치하고 있는 서양의 코린트식 기둥에서 착안한 〈세기의 선물〉은 서양문화를 선호하는 현대 소비 경향을 제시한다. 동시에 과거와 현재, 동서양의 구분을 모호하게 두었는데, 이 역시 시공을 뒤섞은 작업방식과 상통한다. 



04



05



06



07

동양의 도자, 유럽에서 찬란하게 꽃피우다

01



유럽 왕실과 귀족들이 동양 도자기를 수집해 실내에 장식하는 것을 최고의 호사이자 자랑으로 여겼던 시기가 있었다. 중국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는 ‘시누아즈리(중국 취향)’ 바람이 유럽 전역에 불었고, ‘강건왕’ 아우구스트 1세는 일본 도자기를 모방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



02

유럽을 사로잡은 동방에서 온 경이로운 예술품

1600년 영국이 먼저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자 네덜란드도 자극을 받아 통합 동인도회사를 출범시켰고, 그 효력(?)은 금방 나타났다. 1602년 바로 그해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중국에서 물품을 가득 싣고 돌아가던 포르투갈 상선 산타리나(Santanna) 호를 대서양에서 강탈해 상선에 실려 있던 동양의 '귀한 물품'들을 암스테르담에 가져갔다. 그 물품 가운데는 스물여덟 꾸러미의 청화백자 접시와 열네 꾸러미의 작은 사발들이 들어 있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 본 그 그릇들은 경이(驚異) 그 자체였다. 그들은 그 도자기들이 천상의 물건이라 여겼으리라. 둔탁하고 두터운 석기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마올리카만을 사용하던 그들에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얇은 두께로 하얀 바탕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진 청화백자는 그 어느 보석보다도 값어치 있는 보물이었다. 장삿속 강한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보물들을 가만둘 리 없었다. 그들은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청화백자와 중국 그릇들을 경매에 붙였는데,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 역시 완전 흥분의 도가니였다. 이 경매야말로 유럽인들이 대규모의 중국 자기를 접할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1602년은 근대 유럽 도자사(陶瓷史)에서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2년 뒤인 1604년에도 포르투갈로 귀국하는 카타리나(Catharina) 호를 가로챘다. 운 좋게 이 배도 역시 무려 16톤의 중국 청화백자를 싣고 있었다. 배가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자마자 경매 시장이 열렸다. 이번에는 프랑스 왕 앙리4세, 영국 왕 제임스 1세 등 유럽 왕실의 대리인들과 수많은 귀족들이 경매에 뛰어들었고 앞 다투어 도자기를 구매했다. 단 며칠 만에 그 많던 물품들이 모두 팔려나갔다. 중국 청화백자에 대한 입소문이 삼시간에 퍼졌다. 청화백자를 알게 된 유럽 왕실과 귀족들은 '지미추 구두를 처음 신은 에밀리(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여주인공)와 같았다. 마야흐로 중국 것이라면 뭐든지 좋다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 · 중국 취향)' 바람이 유럽 전역에 몰아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중국 도자기는 향신료 이상으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무역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첫 경매가 있었던 해로부터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동인도회사의 배들은 1년에 십만 점이 넘는 중국 자기를 네덜란드로 실어 날랐다. 이 숫자가 당시 암스테르담 인구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양이 아닐 수 없다.

동인도회사의 '대활약'으로 17세기 유럽은 차와 설탕과 향신료에 그랬던 것처럼, 왕실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백자 바탕에 청색이나 다채색 그림이 우아하게 그려져 있는 그릇에 서서히 중독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참으로 달콤한 탐닉이었다. 동양자기를 귀중하게 여긴 풍토는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궁전, 넓은 홀이나 거실 가리지 않고 꼭 탁자 위나 문 입구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동양 자기들이다. 이리하여 청화백자는 물론 채화백자의 우수성과 미학성에 매료된 유럽 왕실은 아시아로 눈을 돌려 어떻게 해야 이 노다지들을 차지할 수 있을지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유럽의 실력자들이 동양 도자기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구도에 속속 뛰어든 것이다.



03

01 덴마크의 로얄코펜하겐도 마이센 모방품에서 시작했다 ©조용준

02 마이센 짝통에서 출발한 체코 체스키 도자기 ©조용준

03 피겨린의 등장은 유럽 왕실외교와 만천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조용준

욕망이 낳은 유럽 최초의 자기, 마이센

칭나라가 명나라 수도 베이징을 점령한 것은 1644년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1648년에 처음으로 일본 이마리 도자기를 나가사키에서 캄보디아로 운반했다는 기록이 네덜란드 상관 자료에 남아 있다. 중국 선박에 의한 히젠(肥前国: 사가 현과 나가사키 현을 지칭) 도자기

—

동양자기를 귀중하게 여긴 풍토는
 일종의 전통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궁전,
 넓은 홀이나 거실 가리지 않고
 꼭 탁자 위나 문 입구에 놓여 있는 것은
 동양 자기들이다.

—

의 최초 해외 수출이다. 품명 및 개수는 '종류별로 만든 자기 174 포대'라고
 돼 있다. 당시 일본에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곳은 아리타 뿐이니까 당연히
 아리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채색자기인 이로에(色繪)도 아니었다. 174 포
 대의 거칠게 만들어진 식기류가 시암(태국)을 거쳐 캄보디아로 수출된 것이
 다. 1650년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히젠 도자기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하
 기 시작했으며, 1657년에 3,040점의 히젠 도자기와 '다양한 샘플이 들어 있
 는 상자'를 네덜란드에 보냈다. 1659년에는 33,910점의 히젠 도자기가 네덜
 란드 선박에 의해 네덜란드,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수출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자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아시아 시장
 에서는 중국 도자기와 경쟁하기 시작했다. 1659년부터는 채색자기도 수출했
 다. 아리타 도자기의 유럽 수출은 1651년부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1653년에는 2,200개, 1664년에는 4만5000개를 수출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때부터 1682년까지 23년 동안 네덜란드 동
 인도회사에 수출한 도자기는 19만점이 넘었다.

이렇게 동양 도자기에 눈을 뜬 유럽의 군주 가운데 아우구스트 1세(August the
 Strong, 1670-1733)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성로마제국의 일원인 작센(Saxen)의 선제후(選
 帝侯)로 폴란드 왕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드레스덴(Dresden)을 파리나 비엔나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열중하는 등 호사 취미와 낭비가 심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일본 도자
 기 중에서도 아리타(有田) 지방의 '카키에몬(柿右衛門)' 양식에 매료된 사람이었다. 카키에몬
 계의 특징은 유백색 바탕에 좌우의 균형을 일부러 무너뜨리고, 붉은색, 금색 등 다양한 색채
 의 안료로 완성된 기물 위에 '우레에(上繪: 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에 다시 그려 넣어 구운
 무늬나 그림)를 한 것이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1620년대 중반 아리타에서 조선 사기장
 으로부터 백자 제조 기술을 전수받은 사카이다 카키에몬(酒井田柿右衛門) 가문이 1640년대
 에 중국 기술을 전해 받아 가키에몬 양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가키에몬 도자기가 유럽
 에 수출되어 아우구스트 1세를 사로잡았고, 그는 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예 도자기를 전
 시해놓는 전시실을 마련할 궁전(일본궁)을 지었고, 또한 동양 자기와 같은 것을 만들 것을 명
 령했다. 물론 그가 도자기를 만들려고 생각한 것은 미학적 취미 때문만은 아니었고, 재정이
 바닥나서 이를 채울 방법이 매우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에게 요한 프리드리히
 뵈트거(Johann Friedrich Böttger, 1682-1719)라는 연금술사가 붙잡혀왔다. 뵈트거는 베를린에서
 약학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연금술에 눈을 뜨고 이에 몰두하자 그의 스승이 격노하여
 제자를 고발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뵈트거는 도망을 가다 국경에서 체포되어 드레스덴 인



04



05



06



07



08

04

세브르 도자기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블뤼 셀레스트(blue celeste)' 플레이트 ©조용준

05

아리타 가키에몬 양식은 유럽 자기 생산의 출발점이 되었다 ©조용준

06

유럽 자기가 출발점인 마이센 도자기 ©조용준

07

유럽에 중국 도자기가 수출되면서 유럽에는 중국 취향을 좋아하는 '시누아즈리' 현상이 생겨났다 ©조용준

08

마담 폰파두르의 애완견 미미와 앙네 피겨린 ©조용준

근의 모리츠부르크 성에 감금되었다. 이때가 1701년 11월. 이후 그는 한 평생 드레스덴에 억류되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타향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 어쨌든 비트거가 드레스덴으로 잡혀오고 난 다음 도자기를 만들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아우구스트 1세는 성 안에 비트거를 위한 실험실을 만들고 본격적인 실험에 나선다. 당시 유럽은 중국 백색 도자기를 '백색의 황금'(Weisse Gold)으로 부를 정도로 대접을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아우구스트 1세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힘든 우여곡절을 거쳐 비트거는 1710년 작센과 체코의 보헤미아를 잇는 국경지대에서 고품질을 찾아내고 마침내 유럽 최초의 자기 제작에 성공한다. 마이센(Meissen) 알브레히트(Albrecht) 성에 자기 공장이 실제 세워진 것은 그해 6월 6일로, 이것이 지금 마이센 도자기의 시작이다.

로코코 문화의 정점을 찍다

마이센 동양과 같은 백자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그 비법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1719년 비엔나에서 유럽 두 번째 자기를 제조했고, 1726년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뢰르스트란드(Rörstrand) 회사가 유럽에서 세 번째의 자기를 만들었다. 또한 마이센 근처에는 모방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한 때는 짝퉁 공장의 수가 무려 60여 개에 달할 정도였고, 그 중의 하나였던 카를 타이헤르트(Carl Teichert)가 오늘날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체스키 도자기 회사(Cesky Porcelan)'가 되었다.

마이센 도자기가 유행하면서 유럽 왕실 외교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자기가 최고의 선물로 부상한 것이다. 최초의 마이센 도자기 선물은 1713년부터 1714년까지 아우구스트 1세가 그의 친척인 하노버(Hanover)의 선제후 왕비이자, 팔라티네이트(지금의 하이델베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의 딸인 소피(Sophie, 1630~1714)에게 보낸 것이다. 광적인 도자기 수집가이자 감정가이기도 했던 소피는 죽을 때 수 백점의 도자기를 남겼다. 이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마이센 찻잔과 받침 두 개 뿐인데, 이는 현재 런던 영국 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독일 지역 하노버 왕가의 유물이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은 바로 그녀가 영국 조지 1세의 어머니라서다.

이후 마이센 피겨린(작은 조각상)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피겨린이 왕실과 귀족, 수집광들의 표적이 되었다. 작센의 아우구스트 3세는 1745년 프로이센 공주 조피 프레데리케 아우구스테 폰 안할트-제르프스트(Sophie Friederike Auguste von Anhalt-Zerbst), 즉 나중 예카테리나 여제와 러시아 황위 계승권자인 표토르 대제의 손자 홀슈타인 고토르프 공작 결혼선물로 마이센 도자기 세트와 함께 다량의 피겨린을 보냈다. 나중 예카테리나 여제는 마이센 도자기에 40개의 피겨린 작품을 특별 주문했는데, 그녀는 이를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남쪽으로 39킬로미터 떨어진 푸시킨 시의 오라니엔바움(Oranienbaum) 궁전(일명 예카테리나 궁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또 애완견 '리제타(Lisetta)' 모양 피겨린의 특별제작을 주문하기도 했다. 예카테리나 여제처럼 프랑스 루이 15세의 정부(情婦)이자, 로코코 문화의 상징으로 유명한 마담 폰파두르(Pompadour)도 앙네(Anne)와 미미(Mimi)라는 자신의 두 애완견 피겨린 특별제작을 주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담 폰파두르는 오늘날 프랑스의 세계적인 세브르(Sevres)왕립도자기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동양의 차(茶)도 세계시를 바꾸었지만, 차를 마시는 도자기 역시 세계시를 바꿨다. 이 짧은 지면에 그 생생한 역사를 다 담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

1

문화 CSR

- 메세나 가까이 보기 -

스스로 만들고 더 많이 나누는

영메이커 인재

LG연암문화재단 'LG 영메이커 페스티벌'

“배운 걸 동생에게 알려줄 수 있어 뿌듯해요”

흰 티셔츠를 입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말한다. “여기 이 물고기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야.” 어른에게도 낯선 아쿠아포닉스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언니·오빠의 설명을 듣는 초등학생들의 눈빛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열심히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수업에 열의를 보인다. LG 영메이커 페스티벌 부스 안의 풍경이다. 지난 1학기 동안 LG 영메이커를 통해 과학과 예술이 공존하는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갔던 서울 경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부스를 직접 운영하며 자신의 배움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있었다.

LG 영메이커 아카데미와 페스티벌은 창의성과 상상력 개발의 차원을 넘어, 메이커로서 학생들의 주체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 높은 예술과학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올해로 3년째 지속하고 있다. 올해 페스티벌은 9월 15일과 16일, 과천과학관에서 양일간 열렸다. 1만여 명의 관람객이 페스티벌을 찾아 '미래도시'를 체험했다. 아쿠아포닉스뿐만 아니라 페이퍼아트를 활용한 미래도시 건축, 조립과 코딩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부스 안에서 관람객들은 직접 만들어보거나 원리를 체험하며 미래도시를 앞서 경험할 수 있었다.

아카데미 학생들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관련 워크숍 활동도 함께 운영하며 페스티벌에 참여한 초등학생에게 그동안 배운 과학과 예술 지식을 전했다. 건축물 키트로 미래도시 건축물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자율주행차 운행법을 익혀 축구시합을 펼치기도 했다. 경서중학교 학생들은 아카데미와 페스티벌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미래의 메이커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보람과 성취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01, 02
서울 경서중학교 학생들이 페이퍼아트를 통해 미래도시를 제작해 전시했다.

03
아쿠아포닉스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 영메이커 페스티벌

who

경서중학교 1학년 학생들,
1만여 명의 페스티벌 참가
관람객

what

메이커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예술과 과학의 축제



02



03





01

LG 사랑의 아트스쿨

who

서울 및 수도권 지역 6개 중학교 143명의 청소년, 안무가 정영두, 극공작소 마방진

what

예술활동(무용·연극)을 통해 청소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극장·학교 연계교육 프로그램

“꿈꾸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2018년 10월 ‘LG 사랑의 아트스쿨’이 첫 수업을 시작했다. LG 사랑의 아트스쿨은 중학생 대상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상력 향상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LG연암문화재단, LG아트센터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하는 극장·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국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다양한 진로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불광중학교, 백석중학교, 신갈중학교를 비롯한 총 6개 학교 14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현대무용을 통해 몸을 움직이며 배우는 ‘내 몸 탐구생활’과 미션을 수행하며 만드는 즉흥연극 ‘말하는 대로’ 등 2개 프로그램에 4회에 걸쳐 참여한다.

지난 11월 16일 방문한 동성중학교에서는 청소년의 관심과 고민을 담아 연극을 만드는 ‘말하는 대로’ 수업이 한창이었다. 극공작소 마방진과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1회차 수업에서는 게임을 통해 연극의 기본 요소를 배우는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2회차 수업에는 즉흥으로 만든 대사와 행동으로 상황 연기를 수행한다. 춤과 노래, 움직임 트레이닝을 받으며 역량을 강화하는 3회차 수업이 끝나면 4회차에서 대망의 연극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날 극공작소 마방진의 배우들은 마법사를 연상케 하는 망토를 두르고 학생들과 연습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3회차 수업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팀에서 직접 작성한 대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했고, 대본을 외우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며 동선을 점검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에 참여한 동성중학교 강성호 학생은 “친구들의 연기 모습을 지켜보고, 나 스스로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2

게임하듯 즐기며 배우는 연극 수업

LG연암문화재단 'LG 사랑의 아트스쿨'

01

청소년들은 몸을 직접 움직이고 표현하면서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유쾌한 체험을 나눴다.

02

강사의 도움을 받아 움직임과 발성 트레이닝을 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02



03



**2018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who
20여개 병원의 환아와 가족들,
도서 산간 지역 초등학교 학생,
미리오페라단

what
어린이 맞춤형 키즈 오페라
<안녕! 딸꾹> 공연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즐기는 오페라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01
명지병원 공연장에서 열린 키즈 오페라 <안녕! 딸꾹>를 보며 어린이 관객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02, 03
공연팀은 어린이 환우를 찾아 쾌유를 빌며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을 증정했다.

"딸꾹이처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지난 11월 1일 명지병원 공연장 객석에서 난데없는 딸꾹질 소리가 흘러나왔다. "딸꾹! 딸꾹! 딸꾹이!" 예닐곱 살 남짓한 어린이 관객 100여 명이 내는 딸꾹질 소리였다. 키즈 오페라 <안녕! 딸꾹>의 커튼콜 현장은 관객들의 딸꾹질 소리로 뜨거웠다.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 미리오페라단은 '종근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의 일환으로 병원과 학교를 돌며 어린이 맞춤형 키즈 오페라를 공연하고 있다. 환아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필두로 올 연말까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충북 종곡초등학교 등 전국 20개 병원을 비롯해 여러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투병 중인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문화공연을 통해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자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이디어로 기획된 키즈오페라는 병원에서 시작해 문화공연 관람 기회가 적은 도서 산간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관객의 범위를 확대했다.

오페라 <안녕! 딸꾹>은 노래를 부르지만 하면 딸꾹질이 나서 한 곡을 다 불러본 적이 없는 "딸꾹이"가 딸꾹질을 고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신감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다. 딸꾹질을 노래의 요소로 활용해 돌림노래를 함께 부르는 뼈꾸기 자매, 리듬이 강조된 힙합 랩을 선보이는 닥터 래빗, 고전적인 발성법을 가르쳐주는 마담 래빗까지. 이들을 만난 딸꾹이는 마침내 마을 노래자랑에 나가게 된다. <안녕! 딸꾹>은 비록 처음에는 서툴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부르며 자신감을 찾아가는 주인공 딸꾹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영화에 삽입된 명곡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했다.



공연을 본 이유진 어린이는 “딸꾹이가 노래를 끝까지 부르게 돼서 기뻐요”라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모습이었다. 공연장에는 연신 손뼉을 치며 흥에 겨운 어린이 관객으로 가득했다.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 류혜원 주임은 키즈오페라 공연이 벌써 3번째라며 “소아재활 치료를 받는 환아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객석을 나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점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에서 예술치료를 받는 환아들이 주로 공연을 관람했다. 아이들이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예술치료 시간에 배운 곡들이 공연에 등장하기도 해서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음악적 자극만이 아닌 ‘치료’로도 유의미한 공연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종근당홀딩스 변무성 과장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더욱 알찬 공연을 마련해 공연 대상을 확장하고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

글 김옥진(경영기획팀)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who
미술작가 진기중, 드림그림
장학생

what
미술작가와 드림그림
장학생이 함께하는 아트
프로젝트

“이제 진짜 미술작가가 되고 싶어요!”

한성자동차 드림그림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국제아트페어(이하 KIAF)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생과 미술작가가 함께 완성한 부스를 마련했다. KIAF는 아시아 최대 아트페어로 세계 주요 갤러리와 미술 관계자,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해 한경우 작가와 드림그림 학생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 만든 작품을 전시해 이미 화제를 일으킨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7월과 8월에 두 차례 진행된 아티스트 멘토링을 통해 대학생 멘토 및 장학생, 진기중 작가가 만든 작품을 전시했다.

진기중 작가와 학생들의 만남은 지난 여름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은 진기중 작가의 작품을 예시로 하여 비디오 설치와 연출 사진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작품의 개념과 이야기를 설정하고 방식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키워드·개요·추진’ 단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수업에서는 비디오 설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순발력을 이용한 세트장 제작과 영상 촬영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관심과 의문을 품었을 때, 진정한 세상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미니어처로 상상력을 발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키워드를 설정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내가 만든 이야기를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드림그림 장학생, 세계무대에 오르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01
KIAF에 드림그림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들이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



01

02
 풍부한 상상력과 작품으로써의 완성도가 고무 조화된 작품들

03, 04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05
 진기종 작가가 울프 아우스프룽 한성자동차 대표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06
 KIAF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02

KIAF 전시 부스 벽면을 촘촘하게 채우는 작품 <알려지지 않은 마을>은 디오라마 연출용 인물 시리즈와 영상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작가는 장학생들이 만든 30여 개 미니어처 세트의 제목을 교묘한 조합으로 재구성해 초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몽환적인 콜라주 영상을 완성했다. 학생들은 영상 속 미니어처와 레진으로 만든 사람 모형을 비교해 찾아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한 진기종 작가는 “나도 어릴 적에 유명 작가들의 특강을 들으며 작가의 꿈을 키웠다”면서, “재정적 후원도 중요하지만 작가와의 만남은 아이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배우고 협업하여 아트 페어에 참여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인생을 두고 보면 찰나의 순간이겠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훌륭한 미술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05



06



03



04

3년간의 지원 성과, 한자리에서 만나다

제5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2016 예술지상 수상작가 3인의 작품이 전시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종근당홀딩스는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제5회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했다.

아트스페이스 휴가 주관하는 '종근당 예술지상'은 한국 화단을 이끌어갈 유망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여 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선정 작가에게 연간 1,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한다. 지원이 종료되는 해에는 전시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이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2016년 수상자인 김수연, 박광수, 위영일 3명의 작가가 지난 3년간 종근당의 후원을 받으며 창작한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서, 총 40여 점의 참신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김수연 작가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해 사물들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고 연출하는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BOTANICA'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박광수 작가는 펜드로잉 작품을 주로 선보인다. 지난해 가수 혁오의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 'TOMBOY'의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위영일 작가는 기존 회화 양식의 고정관념을 깨는 독특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트스페이스 휴의 김노암 대표는 "이번에 기획전을 개최하는 세 작가는 전통적인 조형미술의 범위를 넘어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근당 예술지상이 우리나라 현대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세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 마련된 한빛예술단 단원들의 공연 현장

악보와 지휘는 볼 수 없어도 ² 연주는 수준급

신세계 & 한빛예술단

신세계는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과 함께 10월 4일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콘서트 'Music in the Dark'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장애인 음악가들이 장애를 뛰어넘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음악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공유하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서초구민과 청소년, 소외계층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한빛예술단 단원들은 시각장애로 악보와 지휘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곡을 외워서 연주하며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다.

김중훈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한빛오케스트라는 드보르작의 '교향곡 제9번'으로 공연의 막을 열었고, 모던 팝 밴드 '블루오션'의 대중음악 공연과 브라스&타악양상블 협연 등의 풍성한 레퍼토리가 이어져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003년 브라스양상블로 시작해 올해로 창단 15주년을 맞은 한빛예술

단은 2012년부터 신세계와 결연을 맺고 연주자 육성과 공연 부문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6년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쇼케이스 1위에 오른 후 2년 연속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는 등 시각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대표적인 장애인예술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그 실력을 인정받아 국가 주요행사에서 초청공연을 진행한 경험도 있으며, 청소년과 군·장병, 해외 교민을 위한 희망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나눔의 위로를 실천하고 있다.

신세계는 한빛예술단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인 신세계스퀘어 건립을 후원하는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다문화극단 샐러드의 단란한 기념 촬영 모습

공연으로 다문화의 인식을 바꾸다 ③

신한은행 창작 가족뮤지컬 <마살라>

신한은행은 지난 10월 다문화극단 샐러드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한아트홀에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및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정 22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다문화 가족뮤지컬 <마살라>를 상연했다.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와 함께 증가하는 다문화 이웃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다. '신나는 공연, 한가족 다문화'라는 슬로건 아래 창작뮤지컬을 통해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무료 초청으로 진행되는 공연은 최근 누적 관람객 3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공헌 사업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가족뮤지컬 <마살라>는 인도 학생 '찌민'이 한국으로 오면서 친구들과 겪는 갈등과 화해를 다룬다. 인도 민속춤과 노래가 등장,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인도 음식처럼 서로 다른 아이들이 모여 소통하며 화합하는 해피엔딩 스토리를 담고 있다.

신한은행 김용섭 과장은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네팔,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문화를 소개하는 창작뮤지컬을 제작해 왔다"며, "이주민 200만을 넘어서는 현실에 뮤지컬 공연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고 재능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래식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신한뮤직아카데미'와 문화 소외 계층 공연 관람 지원 사업 '꿈같은 하루', 순수 국내 클래식 유망주를 발굴하는 '신한음악상' 등 다양한 문화나눔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

도심 가득 울려 퍼지는 아리랑 선율

4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도약을 꿈꾸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

크라운-해태제과 <서울아리랑페스티벌>



도심 속 복합문화예술축제 '2018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시와 (사)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은 아리랑의 창조적 확산과 새로운 시대정신 투영을 기치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2013년 시작했다. 국내 최초 민간 재원 중심의 공공문화예술 축제로서 연 30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 아리랑페스티벌은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으로 음악, 무용, 시각미술 등 아리랑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고 아리랑의 가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시대정신에 맞는 문화콘텐츠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참여와 소통,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성장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춤추는 아리랑'을 슬로건으로 춤과 음악, 연희, 놀이 등에 '아리랑 정신'과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아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소설가 황석영의 아들 황호준이 음악감독을 맡고 김유미 안무감독이 참여한 개막공연 <춤추는 아리랑>은 우리 역사 굽이굽이의 질곡과 극복과정을 다룬다. 평화와 화합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음악과 춤, 연

주로 밀도있게 풀어냈다.

축제 2일 차인 13일에는 '광화문뮤직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록밴드 YB와 데이브레이크, 로맨틱펀치가 무대에 올라 그들의 대표곡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아리랑을 선보였다. 특히 메인 라인업인 YB는 지난 4월 평양 공연에서 평화를 염원하며 분단의 아픔을 노래했던 '1178'로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판놀이길놀이>가 벌어졌다. 판놀이길놀이는 '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사물농악대와 시민, 외국인 등 2천여 명이 함께 만드는 초대형 놀이판이다. 사물농악대의 인원은 총 1,178명, 한반도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의 거리인 1,178km와 같은 숫자로 통일 염원과 평화의 상징을 담고 있다. 농악을 공간으로 탄생한 사물놀이 40주년을 기념해 진도북놀이보존회, 우도농악, 호남좌도농악 등 20개 단체 회원들로 구성했다. 육군 군악의장 대대 소속 취타대와 전국 각지의 풍물 명인들도 길놀이를 함께 이끌었다. 길놀이 에 이어 단체별 판놀이와 평화의 단심줄놀이(일명 길쌈놀이) 등이 펼쳐지고, 판놀이길놀이 참가자 2천여 명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

웃음, 눈물, 감동을 한 자리에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5

지승컨설턴트 & 연우무대

2005년 초연을 시작으로 지난 13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연우무대의 스테디셀러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가 지승컨설턴트의 지원으로 2019년 2월까지 공연된다.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뮤지컬 <김종욱 찾기>, <그날들>, <형제는 용감했다> 등 다수의 히트 작품을 만들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을 연출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장유정 연출가의 데뷔작이자 송강호, 문성근, 강신일, 유오성, 김뢰하, 김유석, 송새벽 등을 배출해낸 극단 연우무대의 첫 번째 뮤지컬이다. 2005년 초연 이래 소극장 뮤지컬 최초로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작가·극본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창작 뮤지컬임을 입증했다. 이후 13년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3,300회 이상 공연을 올

렸을 뿐만 아니라 전국 40여 개 도시를 방문하는 등 대학로 대표 창작 뮤지컬로 자리 잡았다.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크리스마스이브, 가톨릭 재단의 무료병원에 있는 환자 최병호가 방송 출연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병원장 베드로가 그의 행적을 추적해 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베드로가 만나는 병원 내 인물들을 통해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각양각색의 매력 가득한 캐릭터들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밝혀지며 눈물을 짓게 만드는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뮤지컬을 본 관객들이라면 “역시, 오! 당신”이라고 말한다. “왜 13년 동안이나 사랑받을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



국내 대표적인 창작 뮤지컬로 통령하고 있는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산실로 거듭나고 있는
광주광역시



빛의 도시 광주에 빛나는 미디어월을 세우다 6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프로젝트

광주문화재단 & 대양건설, 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수안요양병원, 수안센트럴병원

광주는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돼 매년 다양한 미디어 아트 축제와 전시를 펼치고 있다. 올해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이남 작가와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작가로 꾸준한 활동을 보여준 안유자 작가를 선정해 전시를 진행했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기원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광주광역시청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에 전시되었다. 시청 로비의 기둥이 수영장 트랙으로 변모하여, 첨단 기술과 영상이 결합한 미디어 캔버스 위에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선수들과 다이빙하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연출되었다. 기둥 뒤편에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생존 작가 작품 중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던 데이비드 호크니의 1972년작 '예술가의 초상'을 이이남 작가가 재해석한 모니터가 설치되었는데, 수영장에 서서 물속을 바라보는 남성 옆에 이번 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와 '달이'를 추가, 투명하고 맑은 수영장 물을 표현하기 위해 찰랑거리는 물소리를 삽입하여 특별함을 더했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338에서 전시를 진행한 안유자 작가는 지난해 작품 주제였던 '빛의 세계'에서 방향성을 확장하여 레이저 빛과 3D 렌티큘라를 활용한 설치 미디어 작품 10점을 선보였다. 그 중 '찬란한 존재의 빛'을 주제로 한 설치작품은 어두운 밀실에 레이저 빛으로 조성된 환상적인 정원의 현실 공간을 마치 가상공간처럼 느껴지도록 하여 빛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빛을 통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찬란한 존재를 느끼며 관람자가 존재의 실체와 본질을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미디어아트플랫폼을 운영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4만 6천여 명의 관람객을 모은 바 있으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 기계-신의 탄생'을 주제로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및 각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포럼을 개최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하고 있다. ■■



기업과 예술계가 당면한 지역문화 활성화 과제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11월 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예술계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메세나협회와 경남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등 4개 문화예술 후원 매개단체들이 협력해 진행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세미나는 문화예술 기획자와 기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국 메세나 매개기관, 학계 및 문화계 관계자. 오른쪽 위 우진문화재단 박영준 제작감독, 오른쪽 아래 건국대 이병민 교수

매개자의 역할을 고민하다

먼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이병민 교수가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최근 도시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지역이 가진 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메세나 활동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 매개자로서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 및 예술가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협업을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병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매개자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당부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는 자신의 현장 경험에 기반해 기업문화공헌 활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 개발’을 꼽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업보다 지역의 색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선철 대표는 이러한 지역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간 감자꽃스튜디오와 그곳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위쪽 중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주메세나협회 조선희 사무국장, 경남메세나협회 하선주 사무국장, 한국메세나협회 이충관 사무처장,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지역 메세나의 현재와 미래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남, 제주, 전북의 사례를 통해 지역 메세나의 구체적 활동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출범한 경남 메세나의 경우 현재 217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10년 만에 상당한 질적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경남메세나협회의 하선주 사무국장은 “이제 질적인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제주메세나협회의 조선희 사무국장은 이제 막 시작하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메세나의 저변이 넓지 않은 제주 지역에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우진문화재단의 박영준 제작감독의 발표가 이어졌다. 우진문화재단은 우진건설이 설립한 문화재단으로 현재 복합문화공간인 우진문화공간을 운영하며 지역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박영준 감독은 우진문화재단의 메세나를 지속성과 수월성, 독립성으로 특징지어

며, 수익이 아닌 지역과 예술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설립자 김경곤 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메세나 활동 성과에서 중요한 것은 '만족도'

이어 안성아 교수의 사회 아래 이병민 교수와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우진문화공간 박영준 제작감독, 제주메세나협회 조선희 사무국장, 대구메세나협회의 이재백 팀장, 한국메세나협회 박현준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그들은 메세나 활동 확산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특히 토론 막바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언급된 메세나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이선철 대표는 일반적인 지표로 메세나의 효과를 정교하게 평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평판', 즉 기업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쌓는 방법의 일환으로 메세나 활동을 진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병민 교수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익과 비용을 따지는 방식으로 메세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보다 각 이해관계자의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 문학 세계화의 기틀을 마련하다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문화훈장 수훈



지난 10월 24일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신창재 회장은 선친의 호를 딴 대산문화재단을 25년 동안 운영하면서 한국문학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하고 문학 대중화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대산문화재단은 한국 최대 문학상인 '대산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산창작기금, 대산대학문학상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을 발굴해 문학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사업은 한국문학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경리, 황석영, 이승우 등을 비롯한 작가들의 작품 520여 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310편에 달하는 작품을 해외에 출판했다.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영국에서 출판돼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하는 데도 기여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월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시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시인협회로부터 명예시인으로 추대됐으며, 11월에는 한국과 프랑스의 문학과 사상 교류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종도뇌르' 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신창재 회장에 앞서 신용호 창립자는 1996년 기업가로는 처음으로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 9년 뒤인 2005년에는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명예회

장, 금호아시아나 박성용 명예회장, 2012년에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이 수훈했다.

선친인 대산 교보생명보험 신용호 창립자가 1996년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데 이은 2대째 문화훈장 수훈으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받는 문화훈장을 기업이 대를 이어 수훈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인 최초의 진기록이다.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신용호 창립자는 한국보험산업의 선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을 창안했으며 대산농촌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교육재단 등 3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1992년 설립한 대산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학 지원 사업을 통해 우

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고 한국 문학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훈장 수훈식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렸다. 고 정지용 시인과 고 황병기 가야금 명인이 금관문화훈장에 추서됐고 신창재 회장을 비롯해 영남대 염무웅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조흥동 부원장 등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기업 공익재단 최초 서울시 문화상 수상
CJ문화재단

지난 11월 12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제67회 서울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CJ문화재단이 문화예술후원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기업 사회공헌재단으로는 첫 수상 사례다.

2006년 설립된 이래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펼쳐 온 CJ문화재단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음악·공연·영화 부문의 신인 창작자를 발굴·육성하며 서울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꿈 실현에 기여한 점, 창작공간 겸 공연장 'CJ아지트'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확대한 점,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활동 '툰업음악교실'을 통해 정서 안정에 기여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CJ 사회공헌추진단 민희경 부사장은 “CJ문화재단의 첫 번째 목표는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젊은 예술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젊은 창작자들의 꿈지기로써 문화 생태계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문화상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48년 제정됐으며, 서울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어진다. 올해는 문화예술후원 부문 CJ문화재단과 대중예술 부문 영화 배우 박중훈 씨를 비롯해 총 13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국내 최고 공연장의 품격
LG아트센터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2년 연속 1위**

LG아트센터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2006년부터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4개 공연장을 대상으로 공연장 부문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유일한 민간 공연장인 LG아트센터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관객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LG아트센터는 지난 2000년 LG연암문화재단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건립한 공연장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 메세나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내 최초 시즌제 도입, 패키지 제도 등을 운영하며 국내 공연 시장 발전을 견인함은 물론, 기획공연을 통해 동시대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을 시차 없이 소개한다는 그 목적에 따라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LG아트센터 정창훈 대표는 “앞으로도 모든 예술가와 관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도록 완성도 높은 공연, 앞서가는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젊은 예술가의 미래를 밝히는
제9회 두산연강예술상 개최**



두산연강재단은 10월 5일 종로5가 두산아트센터에서 박용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두산연강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두산연강예술상 공연 부문은 연출가 김정, 미술 부문에서는 이윤이 작가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연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 3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 상당의 신작 공연 제작비가 지원되며, 미술 부문 수상자에게는 마찬가지로 상금 3천만 원과 서울 및 뉴욕 전시, '두산레지던시 뉴욕' 입주 등을 포함해 1억 4천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공연 부문 수상자 김정 연출가는 극단 '프로젝트 내친김에'의 연출을 맡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설치와 미디어 작업을 선보여온 이윤이 작가는 “그동안 작업을 지지해준 주변 사람들을 위해 생활과 작업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연강예술상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유지를 잇기 위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0년에 제정됐다. 매년 공연과 미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만 40세 이하 예술인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박용현 이사장은 “올해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연강재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다”며, “우리 문화예술의 내일을 이끌어갈 젊고 재능 있는 창작자들을 만나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올해를 빛낸 연극과 음악
제8회 벽산문화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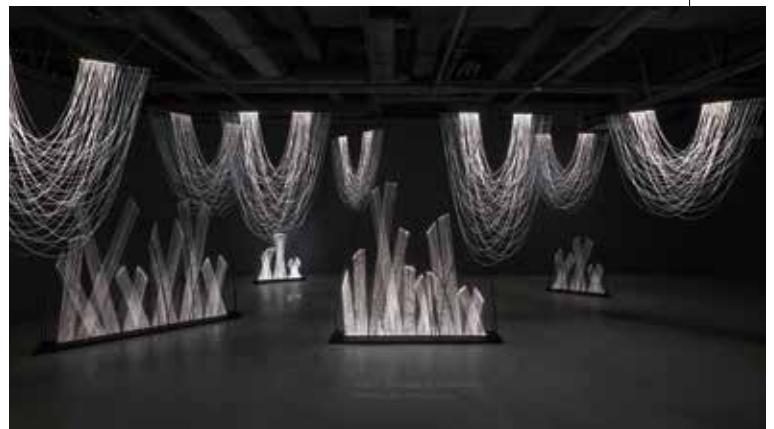
벽산문화재단은 11월 14일 오전 11시 태평양물산빌딩에서 '제8회 벽산문화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벽산희곡상'과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된 '벽산음악상'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벽산희곡상은 국내 대표적인 희곡상 중 하나로, 올해의 영예는 <목적지수>를 집필한 서민준 작가에게 돌아갔다. 서민준 작가는 201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에 입학한 뒤 <For sale>, <종이인간> 등 다양한 작 경험을 갖춘 신예다. 심사위원 윤한솔 작가는 <목적지수>에 대해 “춘추전국시대 검애를 숭상하는 목가의 사상을 비전주의로 확장시킨 작품으로, 선불리 현대와 타협하지 않고 고문헌들에 대한 방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시대의 역사성과 사상을 재현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벽산음악상은 한국의 대표 트리오 '토너스 트리오(Tonus Trio)'가 선정됐다. 토너스 트리오의 보스턴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NEC)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양고운, 첼리스트 이강호, 피아니스트 주희성으로 구성된 트리오로 후학 양성과 함께 왕성한 연주회와 음반활동을 이어가는 그룹이다. 특히 지난 8월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1번과 2번을 수록해 발표한 첫 음반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정통 클래식 음반으로 호평받았다. 심사를 맡은 한국페스티벌앙상블 박은희 대표는 “후배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연주활동을 펼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며 토너스 트리오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공간과 소통하는 섬유와의 유연한 만남
세화미술관 <유연한 공간: Flexible Space>**



세화미술관은 '섬유'를 주제로 한 <유연한 공간: Flexible Space> 전시를 열고, 섬유가 가진 유연한 물성과 공간으로의 확장성을 구성해 섬유산업과 섬유미술의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줄 계획이다. 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강은혜·정다운·노일훈·박혜원·차승언 등 다섯 명의 작가가 총 16점을 선보인다. 작가들은 섬유 매체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대중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섬유와 공간의 유연한 만남을 유도한다. 작품들은 직조와 염색 등 섬유의 기본에서부터 아라미드 등 신소재 섬유까지 아우르는 재료를 활용한다. 한편 세화미술관은 일주&선화갤러리를 확대 개관했다.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 마련된 공간에서 공공미술 작품과 국내외 다양한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

1 '기업 메세나 실무자 초청 예술 체험' 개최 예술과 공존하는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 탐방



한국메세나협회는 10월 26일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기업 문화사업 실무자와 메세나 사업 관심 기업의 담당자 등을 초청해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기업 담당자

간 문화공간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탐방을 통해 미술 분야 지원에 필요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25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리조트 내 전시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관람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축구장 46배 규모로 동북아 최초의 아트테이먼트(Art-tainment) 리조트이다. 데미안 허스트, 쿠사마 야오이, 수비드 굽타, 이강소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총 2,700여 점

의 작품을 객실과 로비, 아트 스페이스 등 리조트 전역에 전시하고 있다. 특히 데미안 허스트의 '골든 레전드(Golden Legend)', '스팟 페인팅(Spot Painting) 리즈' 등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2017년 4월 개장 이후 1년 간 방문객 120만 명 기록하는 등 예술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 9월에는 리조트 내 전시공간 '아트 스페이스'를 추가 오픈해 리조트에 숙박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도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서 파라다이스 시티 관계자가 직접 작품 해설을 진행하며 전시 운영 현황과 노하우, 미술계 트렌드 등을 설명했고, 갤러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예술공간 운영에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많았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여러 기업의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

2 40여 년 무대를 지켜온 배우 윤석화와의 만남 메세나 CEO 문화포럼 개최

한국메세나협회는 10월 24일 오전 웨스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제 12회 메세나 CEO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1회에 이어 '우리 시대의 예술가' 시리즈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43년차 배우이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배우 윤석화와 함께 했다.

남다른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로 활약하고 있고, 공연장 운영과 잡지 발행 등 남다른 에너지로 활동해온 그녀가 말하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1980년대 400여 편의 CM송을 부른 CM송의 여왕이었던 윤석화는 연극 무대로 진출한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느낀 것들을 가감 없이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았다. 배우로 보낸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경영자로 보내온 윤석화는 폐간 직전의 월간 <객석>을 되살리고, 낡은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공연장과 갤러리로 운영해 오면서 예술과 경



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남다른 열정과 에너지로 무대 위와 아래를 이끌어오던 그녀는 "100% 봉사직"인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의 자리에 있다. "기업인이 예술과 진심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윤석화 이사장과의 시간은 딱딱한 강연 방식이 아닌 'Art Talk'를 통해 보다 편안하게 예술과 삶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다.

이날 포럼에 앞서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정명화, 김소연을 사사하고 있는 한재민 군이 다비드 포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헝가리안 랩소디, Op.68'을 연주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December 12

금호아트홀 12월 <아름다운 목요일> 시리즈

2018.12.6, 12.13, 12.20, 12.27 / 금호아트홀



금호아트홀의 특별기획 시리즈 <베토벤의 시간 '17'20>은 독일 낭만 음악 해석의 선두주자 프랑수와 프레데리크 기의 경쾌한 피아노 소나타를 필두로 첼리스트 김두민

과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깊고 진실된 첼로 소나타 전곡, 그리고 김다솔의 장엄한 합머클라비어를 포함한 착실한 피아노 소나타 연주로 이어지며 호평을 받았다. 12월에는 지난 여름 밤을 수놓았던 트리오 제이드와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이 다시 돌아와 실내악의 정수를 펼친다.

<갈고도 다른 : 치바이스와의 대화>

2018.12.5~2019.2.7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예술의전당이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갈고도 다른 : 치바이스와의 대화>는 2017년 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치바이스-묵장에서 거장까지>에 이은 두 번째 <치바이스> 특별전으로, 이번에는 중국국가미술관 소장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치바이스 걸작 80여 점과 치바이스의 예술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팔대산인 주탑과 오창석의 걸작 20여 점 등 총 116점의 작품들을 시공을 초월한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예바 알머슨>

2018.12.7~31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56전시실



전시 <행복을 그리는 화가 예바 알머슨>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페인 화가인 예바 알머슨의 세계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전시다. 유화, 판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그녀의 초기작부터 서울을 주제로 한 최근 작품까지 총 15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HOME(집)이라는 주제로 8개의 ROOM(방)으로 구성되어 작가의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화풍으로 그려진 소소한 일상을 담는다.

<마르쿠스 슈텐츠와 안드레아스 오펜저머>

2018.12.14~15 / 롯데콘서트홀

서울시향과 마르쿠스 슈텐츠가 신나고 아름다운 춤곡으로 꾸며진 공연을 선보인다. 라벨의 <볼레로>는 스페인의 춤곡을 모티프로 한 20세기 최고의 히트곡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경쾌한 관현악곡은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사랑받는 곡이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클라리넷 수석 안드레아스 오펜저머 역시 초기 고전주의 작품인 슈타미츠와 20세기 후반 폴란드의 루토스와프스키라는 동떨어진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흥겨운 춤의 리듬과 멜로디를 선사한다.



송년 가족뮤지컬 <애니>

2018.12.15~30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01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을 맞아 송년 가족뮤지컬 <애니>를 공연한다.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품격있는 가족 뮤지컬로 손꼽히는 <애니>는 뉴욕의 고아원에 있는 해맑은 소녀 애니가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파보 예르비 & 도이치 캄머필하모닉>

2018.12.19 / 롯데콘서트홀

최고의 캄머오케스트라로 각광받는 도이치 캄머필하모닉이 2004년부터 예술감독직을 맡고 있는 파보 예르비, 바이올린 여제인 힐러리 한과 함께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파보 예르비는 '지휘 명가' 예르비 가문 출신으로 처음에는 마에스트로 네메 예르비의 아들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신시내티 오케스트라를 명문 악단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도이치 캄머필하모닉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명예 지휘자, 신시내티 심포니 명예 음악감독, 그리고 NHK 심포니 수석지휘자, 2019 시즌부터는 취리히 토탈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겸 음악감독까지 겸하고 있다.



크레디아 스타더스트 시리즈 V <스테판 피 재키브>

2018.12.20 / 롯데콘서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가 내한공연을 펼친다.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인 피아니스트 지용,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각각 1부와 2부에 합류하여, 레오폴드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의 작품과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26번> 등의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향 2018 티에리 피셔의 합창>

2018.12.21~22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우리에게 '합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베토벤 9번 교향곡이다. 이 작품이 송년 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로 꼽히는 것은 자유와 화합, 인류애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향곡 최초로 성악과 합창을 도입한 베토벤의 파격적 시도를 담고 있는 4악장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독창자와 합창단의 노래로 이어지는 4악장은 인류의 사랑과 희망, 화합의 메시지를 전한다.



<크리스마스 음악 페스티벌>

2018.12.22~26 / 롯데콘서트홀

롯데콘서트홀에서 다채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음악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금난새의 크리스마스 선물', 모두에게 설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할 케이크보다 달콤한 '유기 구라모토 콘서트',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스타 피아니스트 임동혁과 리처드 용재 오닐 등 클래식 스타들의 매력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임동혁의 슈베르티아데가 연이어 진행된다.'



디즈니 필름 콘서트 <겨울왕국>

2018.12.2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식 디즈니 라이선스로, 국내에서 처음 공연하는 <겨울왕국>은 영화 전편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하면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오케스트라 라이브로 듣는다. 디즈니 필름 콘서트 <겨울왕국>은 2015년 런던 로열 알버트 홀에서 첫 선을 보인 후 뮌헨, 바르셀로나, 싱가포르 등에서 성황리에 이어져왔다.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2018.12.2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오랜 시간 그를 지켜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종합선물 세트같은 무대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 및 클래식 곡으로 채워진 1부와 유기 구라모토의 베이스 연주곡과 시즌에 어울리는 재즈, 영화음악까지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2부로 구성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2018.12.31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기억들을 되돌아 보며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게 될 제야에 예술의전당이 특별한 음악회를 선보인다. 정통 클래식의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의 진한 감동을 이끌어낼 이번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정지용이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손열음 등 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음악회에 이어 2019년을 여는 카운트다운이 진행된다.



<빈 필하모닉 앙상블 2019 신년음악회>

2019.1.4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842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칼 뵘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 전설적인 거장 지휘자와 다수 협연을 진행한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이다. 특히 매년 12월31일과 1월 1일 정오에 개최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New Year's Concert>는 해마다 세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지휘자를 초빙하여 특별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 공연 실황을 중계하는 세계적인 특별프로그램으로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연극 <레드>

2019.1.6 ~ 2.10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연극 <레드>는 추상 표현주의 시대의 절정을 보여준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와 가상 인물인 조수켄(Ken)의 대화로 구성된 2인극으로 씨그렘 빌딩 벽화에 얽힌 마크 로스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한 작품이다.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를 대변하는 로스코와 켄은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뜨거운 논쟁을 펼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것에 정복 당하는 순환, 세대 간의 이해와 화합 등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작품이 전하는 삶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는 물론 자아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아마데우스 라이브>

2019.1.10 ~ 11 / 롯데콘서트홀
<아마데우스 라이브>는 불후의 작곡가 모차르트의 불꽃같은 일대기와 그가 남긴 음악들을 통해 모짜르트의 삶과 음악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다. 영화 <아마데우스>의 HD버전을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며, 모차르트의 주요 작품들을 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다.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

2019.1.9~3.28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뮤지컬 <라이온 킹>은 전세계 9천 5백 만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한 '전세계 역대 흥행 1위' 작품이다. 이번 인터내셔널 투어는 오리지널 연출가인 줄리 테이머가 연출을 맡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의 무대 스케일과 아름다움을 아시아 무대 위로 펼쳐 놓는다. 아프리카 소울로 채워진 음악, 예술과 과학으로 탄생한 무대와 의상, 배우들의 신체의 아름다움과 혼연일체 된 동물 캐릭터의 표현과 안무는 <라이온 킹>만의 특별함으로 반드시 오리지널로 봐야 하는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공연은 브로드웨이에 가지 않고도 원어 그대로의 감동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최초의 무대이다.



뮤지컬 <플래시댄스>-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내한

2019.1.18 ~ 2.17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동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플래시댄스>가 내년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단 5주간 공연된다. 뮤지컬 <플래시댄스>는 낮에는 웅장공, 밤에는 댄서로 일하면서 명문 시플리 댄스 아카데미에 진학해 전문 댄서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18세 알렉스의 감동 성장 스토리를 그린다. 꿈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 사랑의 힘으로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스펙터클한 무대, 감탄을 자아내는 안무 그리고 경쾌한 음악과 함께 전달한다.



그레이트 클래식 시리즈 <조이스 디오나토> 내한공연

2019.1.21 / 롯데콘서트홀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극장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최고의 프리마돈나 조이스 디오나토의 내한 공연은 2017년 발매된 그녀의 음반 <In War & Peace>에 수록된 레퍼토리들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올게 하소서'를 비롯해 헨델과 퍼셀 등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 아리아들을 들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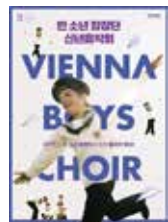
<2019 서울시향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2019.1.24~25 / 롯데콘서트홀
106년 전, 스트라빈스키의 신작 발레 '봄의 제전'의 파리 초연은 이내 소란으로 비화했다. 이 곡은 일찍이 들어볼 수 없던 과격하고 원초적인 작품이었다. 한 세기 후 오늘날의 우리도 그 영향력 아래 있다. 한편,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에 있어서 라흐마니노프의 3번 협주곡에 맞먹는 의욕과 기교, 힘있는 감정을 담아낸 작품은 없다. 정밀한 기교를 지닌 러시아 태생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트버그가 협연한다. 서울시향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가 폭죽처럼 터지는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미라' 서곡을 첫 곡으로 지휘한다.



<2019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019.1.2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빈 소년 합창단이 2019년에도 한국 관객들에게 가장 먼저 신년인사를 전한다. 이번 한국 투어에서 합창단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빈 소년 합창단의 세계>라는 주제로 빈 소년 합창단을 대표하는 음악들인 교회음악, 왈츠, 폴카를 비롯하여 오페라 음악, 오페레타, 가곡 등에서 보이



소프라노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을 선정하여 들려줄 예정이다.

아드만 애니메이션 <두번째 외출>

~2019.2.10 / 부암동 서울미술관
세계 시장을 겨냥한 장편 영화, 시리즈물, 광고물, 디지털 오락물을 제작하는 영국의 아드만 스튜디오는 1990년대 클레이 애니메이션 장르로 대중에게 사랑받았다. 대표적으로 '월레스와 그로밋'부터 '치킨피가'가 되기 싫어 농장에서 탈출하는 닭들의 일탈기를 그린 '치킨런', 날기 너머 지하세계를 그린 '플러시'와 크리스마스의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아더 크리스마스', 해적 시대 최고의 해적이 되기 위해 모험기를 그린 '허당해적' 등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드만 스튜디오의 대표 작품들이 만들어진 과정을 재조명한다. 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드만 스튜디오의 콘텐츠의 생산과정을 보면서 아날로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2019 서울시향 실내악 시리즈 II: 슈테판 도어>

2019.2.24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브람스는 바이올린과 파이프 오르간 등 세 악기를 조합하면 멋진 시너지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호른 삼중주는 아름다우면서도 내면적인 작품으로, 세계적인 호른 수석 주자인 슈테판 도어가 연주를 이끈다. 모차르트의 호른 이중주는 멋진 유머와 진정한 시너지 결합된 작품이다. 풍성한 색채가 있는 마르티누의 구중주와 젊은 시절 베토벤의 작품이 이어진다. 피아노와 목관으로 이뤄진 멋진 하룻밤이 될 것이다.



<러빙빈센트>

~2019.3.3 / M컨템포러리
지난해 개봉한 영화 '러빙 빈센트'가 최근 전시를 통해서 관객들과 다시 만나고 있다. 영화 '러빙 빈센트'는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을 위해서 20개국 출신의 화가 125명이 참여했으며 반 고흐의 마스터피스 130여점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상업 영화에 비하면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양성 영화로는 대박을 친 수치다. 또 제75회 골든글로브,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애니메이션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러빙빈센트>전은 영화 '러빙 빈센트' 제작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반 고흐의 생애를 되짚는 것은 물론 영화에서 사용된 125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반 고흐가 그리 초상화 25점이 배우들에 의해 살아나는 과정을 만날 수 있고 원작을 필름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함께하는 메세나

회원사 소개

회장사	간삼건축	동아출판	(주)삼화에프앤에프	제일기획	한화손해보험
일신방직	강원랜드	동일방직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조선호텔	한화케미칼
부회장사	공간그룹	동일FnG(주)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조은시스템	현대백화점
교보생명보험	광주요	두리비전	서울예술기획	중이문화재단	현대자동차
(주)노루홀딩스	금융투자협회	(주)두산	서울옥션	지앤이허링코리아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동성코퍼레이션	금호건설	두산 산업차량(주)	(주)성도GL	청림출판	현대차정몽구재단
벽산엔지니어링	금호고속	두산건설	세일ENS	카카오	(주)호텔롯데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금호타이어	두산연강재단	세화예술문화재단	컨슈머타임스	(주)호텔롯데 면세점
삼양홀딩스	금호홀딩스	두산인프라코어	소니코리아	케이옥션	호텔신라
설원량문화재단	금호미쓰이화학	두산중공업	(재)송원문화재단	(주)코리아 투모로우	홈플러스
세아제강	금호석유화학	롯데렌터카	(주)스파르터내쇼날	코카콜라음료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주)유니드	금호폴리켄	롯데문화재단	신라교역	(주)크레디아프로젝트	휠라코리아
종근당	금호앤비화학	롯데백화점	신성씨에스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휴맥스
코오롱그룹	기업은행	르노삼성자동차	신한금융투자	태영건설	BMW코리아(주)
크라운 해태제과	김영사	(주)마케팅규레이터그룹	신한은행	퍼시스	BNK경남은행
풍산그룹	나라삼양감속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카드	포스코ICT	BNK부산은행
한화갤러리아	나라통상(주)	(주)모나미	아시아나HDT(주)	필립모리스	CJ문화재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나우피플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아시아나어포트(주)	KEB하나은행	(주)HK
효성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	아시아나항공	(사)한국FPSB	HSD엔진
이사사	네이처스웨밀리코리아	미디어월	오렌지라이프	한국GM	GA KOREA Outlet & Resort
가현문화재단	(주)노루케미칼	미래에셋대우	(주)아이피케이	한국경영자총협회	GS칼텍스 예술마루
고려당	(주)노루오토코팅	법률사무소 C&B	(주)에스원	한국공항공사	KB국민은행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베이글카페	베이글카페	영앤임섬 주식회사	한국공항주식회사	(재)KBS교향악단
디자인하우스	녹십자	보령제약(주)	오리콤	한국광고주협회	KDB생명
사라	뉴서울 컨트리클럽	본아이에프(주)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국제교류재단	KT
(주)신세계	뉴스킨 코리아(주)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올림푸스한국(주)	한국남동발전	KT&G
이건홀딩스	뉴욕제과	(주)브레드가든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국마사회	LG생활건강
전국경제인연합회	다보성고미술전시관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우리종합금융	한국무역협회	LG전자
파라다이스그룹	(주)다진	삼성SDI	(주)우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LG화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림산업	삼성SDS	우진건설(주)	한국서부발전	LH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상	삼성물산	원마운트	한국수력원자력	LMS
한성자동차	대상문화재단	삼성생명	원암문화재단	한국암웨이	NHN 티켓링크
POSCO	대성산업가스	삼성서울병원	원포시스(주)	한국예탁결제원	OCI
SK SUPEX추구협의회	대신증권	삼성엔지니어링	유안타증권	한국전력공사	SK건설
사회공헌위원회	대우건설	삼성전자	유중아트센터	한맥도시개발	SK네트웍스
LG연암문화재단	대한상공회의소	삼성중공업	이상일문화재단	한미회계법인	SK에너지
회원사	대한제분	삼성증권	이건산업	한미약품	SK증권
경남스틸	(주)대한항공	삼성카드	인산죽영 주식회사	한빛문화재단	SK텔레콤
가나아트갤러리	더페니스샵코리아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인터파크 큐브릿지	한세실업	SK해운
	도서출판 '삶과 꿈'	(주)삼양인터내셔널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주)한진	SM삼환기업
	동서식품	삼익문화재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주)한화	TCC동양
	동아쏘시오홀딩스	삼일회계법인	제우인베스트먼트(주)	한화생명	

NEW MEMBER



한국 시각예술의 글로벌 프로젝션을 위해 2009년 출범한 코리아투모로우는 미국, 영국, 홍콩, 인도네시아,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 큐레이터, 철학자들과 협력해 왔다. 매년 30명~50명이 참가하는 하나의 거대한 통합 플랫폼이자 브랜드로 자리잡은 코리아투모로우는 다양한 기획자들의 세부 기획전을 통해 새로운 개념, 작품, 작가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하는 메세나

회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9 ~ 11)

Gns 경남스틸

THE FACE SHOP
NATURAL STORY

동서식품

동아쏘시오홀딩스

사라

SAMSUNG 삼성서울병원

SEI LENS

OLYMPUS
Your Vision, Our Future

SHINSEGAE
CHOSUN HOTEL

종이문화로 세계화됨, 종이접기로 평화됨!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
KOREA PAPER CULTURE FOUNDATION
세계 종이접기연합
WORLD JONGIEJOPGI ORGANIZATION

K
O R E A
T O M O R
R O W

Coca-Cola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CREDIA Projects

Hanmi 한미약품

한화케미칼

HYUNDAI
DEPARTMENT STORE

H 현대해상화재보험

LOTTE
HOTELS & RESORTS

HYOSUNG

BNK 부산은행

GS칼텍스
예울마루

LG 생활건강

OCI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회원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회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비로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당신의 후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그 마음, 그 열정으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밤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를 전합니다.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2018 메세나 대상수상기업



2018
MECENAT
AWARDS

대상



문화공헌상



메세나인상



칭의상



Arts & Business상



▶시상식 2018년 11월 29일(목) 오후 5시 ▶장소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WV** 한국메세나협회 매일경제 **MB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OONGSAN** **samyang**
일신문화재단 **NOROO** **EAGON** **HYUNDAI** **Hanwha** **LG** **S&AH** 세아계량 **홍근량** **CROWN** **5원** **UNID** **KOLON** **KYOBO** 교보생명 **Hanm** 만미약품 **CJ** 문화재단

본 광고는 삼양커뮤니케이션즈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기업으로 가는 길

하나. 문화로 인사합시다

법인세 부담도 낮추고,
기업의 이미지도 살리는 1석 2조의 방법입니다.

문화접대비란?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 축제, 문화예술 강연 등의 입장권이나 도서 및 간행물, 음반, 영화,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해 접대에 사용하실 경우, 사용액만 큼 해당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접대비 한도액의 20% 범위 내)

문화접대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문화경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 예술에 기부 하세요

기부도 하고, 법인세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기부란?

별도의 반대급부 없이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상품에 현금,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할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협회 회원은 누구나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지정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에 기부하는 것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는 일입니다.

500
Mbps

1
Gbps

2.5
Giga

10GiGA
internet

KT가 가장 먼저 10기기로 달립니다

초고화질 영상을 순식간에 다운로드!
집안 어디서든 다 함께 써도 끊김 없는 와이파이까지

KT가 국내 최초 10기가 인터넷으로
또 한번 세상을 Perfect하게 만듭니다

기존 인터넷 대비 100배



기존 Mega인터넷 대비
100배 더 빠른 속도



초고화질 동영상을
순식간에 업다운로드



고용량 VR컨텐츠를
더욱 실감나게



최대 3대의 공유기로
집안 어디서나 완벽한 연결



여럿이 나눠써도
느리거나 끊김없이

PEOPLE. TECHNOLOGY.

